



“루이뷔통 지고 다이소 뜬다?” 불황이 만든 ‘대가성비 시대’

경기침체·고물가에 불황형 소비
저가상품 취급, 다이소 성장 뚜렷

LVMH 1분기 실적 예상치 밑돌아
구찌도 국내매장 10곳 철수 검토

이름하여 ‘대가성비의 시대’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맞물리면서, 가성비 제품을 중시하는 불황형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명품 시장은 주춤하면서, 실속형 저가 상품 위주로 유통 시장 판도가 재편되는 모양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성다이소의 지난해 매출은 3조 9689억원으로, 전년(3조 4604억원)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3711억원으로, 전년 대비 41.8% 증가했다.

온라인 채널에서도 다이소 성장세는 뚜렷하다. 애플리케이션·리테일 분석 서비스인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3월 다이소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는 405만 명으로, 전년 동월(214만 명) 대비 89%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다.

1000~5000원대 초저가 상품만을 취급하는 다이소의 박리다매 구조를 감안하면, 4조원대 매출은 불황형 소비 확산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고물가 상황이 고착되면



15일 서울 시내 한 다이소 매장을 찾은 시민이 구매할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서, 가격 대비 효용이 높은 상품에 수요가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타 유통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을 겪는 가운데, 다이소만 매출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 2조 9457원, 2023년 3조 460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2393억원, 2617억원으로 지속 상승했다.

같은 맥락에서, 명품을 중심으로 한고가 소비 시장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돌았다.

애널리스트들은 평균 0.55% 하락을 예상했으나, 실제 패션·가죽 부문 매출은 5% 감소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부진을 보인 것이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는 루이뷔통, 크리스티앙 디올, 불가리, 로로피아나 등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최대 명품 그룹이다.

명품 불황에는 세계적인 불경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 관세 전쟁이 한데 얹힌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불안과 환율 상승, 무역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명품 시장 큰 손인 중국인들이 지갑을 닫게 된 것이다.

이런 흐름은 국내 명품 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구찌가 현재 운영 중인 국내 매장 46곳 중 약 10곳의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찌는 이미 지난달 말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매장을 폐점했다.

온라인에서는 명품 소비 둔화 현상으로 최근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 회생을 신청했으며, 또 다른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의 경우 적자를 면하기 위해 외부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관세 전쟁까지 겹치며 국내의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소비는 자연스레 저가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면서 “가성비 중심의 저가 시장과 중고 시장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봄 맞이 목욕하는 세종대왕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관계자들이 세종대왕 동상을 세척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오리온, 글로벌 식품기업 도약 국내외 공장 신증설에 8300억

진천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 투입
완공 땀 국내 2.3조 생산능력 갖춰
러시아 2400억·베트남 1300억 추가

오리온이 총 83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위한 글로벌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오리온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충청북도 진천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에 4600억원을 투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5년 내 식품기업의 국내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진천 통합센터는 축구장 26개 크기인 18만8000㎡(약 5만7000평) 부지에 연면적 14만9000㎡(약 4만5000평) 규모로 건설되며 생산, 포장, 물류까지 연결된 원스톱 생산기지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중순에 착공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 물량에 대한 제품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 진천 생산공장이 완공되면 국내 생산능력은 최대 2조 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된다.

진천 통합센터 조성에는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사용

한다.

오리온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고성장하고 있는 해외 법인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러시아 법인은 현지 판매물량이 최근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공장가동률이 12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초코파이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트베리 공장 내 새로운 공장동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트베리 신공장을 가동한 이래 3년 만이다. 총 투자 금액은 2400억원 규모이며 파이, 비스킷, 스낵, 젤리 등 16개 생산 라인이 증설된다.

베트남 법인은 매년 고신장을 거듭하면서 2024년 연매출 5000억원을 돌파했다. 베트남은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총 1300억원을 투자해 베트남 1등 식품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하노이 연풍공장 내 신공장동을 완공하고, 쌀스낵 라인 증설로 공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선다. 쌀스낵은 출시 6년 만인 올해 마켓쉐어 1위 달성을 목전을 두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국민대타협·생존전략 통해 위기 극복해야”

2025 감사·리더스 관리 포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강연
“생존본능·승부사 기질·집단의식
우리에게겐 기적 일궈낸 자신감 있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지금의 경제 상황은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렵고, 복잡하기로는 1945년 2차 대전 종료 이후 가장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시기다”라며 “우리나라 경제상황 또한 녹록지 않은 만큼,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집중해야 할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15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에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는 을사늑약이 있었고, 그 뒤 60년은 해방,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6·25전쟁, 분단 등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라며 “그 다음 60년간 우리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45배 성장

시키고, 세계 10대 국가로 도약하는 등 광장한 일들을 이뤘고 지금은 새로운 60년의 초입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전 위원장(지평인 문사회연구소 대표)은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DNA’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제 ▲대전환기의 세계 경제 현안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을 ‘역사학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난 6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배경으로 인력, 기술, 자본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은 근면하고 우수하며, 교육열도 높은 인력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부지런하게 생업에 임했고, 위대한 산업 국가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 박은정 “尹 캣타워, 건적 부풀려 착복 의심… 수사 필요” /사진 뉴시스
▲ 민주 “홍준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남 정황 드러나… 정계 은퇴해야”

▲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 미 전략폭격기 B-1 B 전개
▲ ‘尹 계엄’ 이후 퍼진 ‘계엄문건 사칭메일’은 北 소행

▲ 한 대행 “관세 대응 필요한 경우 트럼프와 직접 소통
▲ 국민의힘, 정부 12조 추경에 “민주 초당적 협력 나서야”